



공장이 다시 돌아간다 재고적체로 가동이 중단됐던 공장이 다시 돌기 시작했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기아자동차, GM대우, 미원상사 등이 조업을 재개했다. 사진은 작년 말 휴무에 들어갔던 현대자동차 울산 2공장이 설비공사를 마치고 정상가동에 들어간 조립 현장의 모습.

KT-KTF 합병인가 접수 통신대전 막을랐다

KT와 KTF가 합병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SK텔레콤과 LG 통신그룹 등 경쟁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SK텔레콤·SK브로드밴드는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KT와 KTF 합병은 절대 허용되어선 안 된다”며 합병 반대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만원 SK텔레콤 사장은 “KT-KTF가 합병하면 유선통신시장에서 가진 KT 힘이 무선통신시장으로 옮겨와 전체 통신시장을 독식할 수 있다”며 “KT 주장과 달리 합병으로 인해 마케팅 전쟁이 벌어지면 이용자들에게 대한 요금 인하와 같은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

이 KT 합병 발표 직후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한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주장한 것은 만약에 합병이 승인될 경우 이에 따른 반대 급부를 얻기

KT 서비스 경쟁해 요금인하

SK텔 방송사업까지 독점우려

LG텔 시내 가입자망 분리해야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유력하게 예상되는 것은 방통위의 유효경쟁정책 폐지 선언이다.

유효경쟁정책은 후발 사업자 육성을 위해 선발 사업자보다 차별적인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 정부는 와이브로 신규 사업자 선정과 800MHz 주파수 재배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가 유효경쟁정책을 유지한다면 SK텔레콤은 와이브로망과 800MHz 네트워크망을 싸 가격으로 후발 사업자에 빌려줘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다.

이를 미리 막아보기 위해 SK텔레콤이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LG 통신그룹도 KT·KTF 합병을 반대하고 나섰다.

LG 통신그룹은 합병이 불가피하다면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주파수 재배치시 허용 주파수를 제한하고 시내 가입자망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KT 시장 지배력이 이동통신시장에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상열 기자 syjeon@ktnews.com

삼성전자 작년 4분기 9400억 적자

**분기 사업 첫 영업손실
연 매출 118조 사상최대**

한국의 대표기업 삼성전자가 세계 경기 침체의 파고를 비켜가지 못하고 지난해 4분기(10~12월) 940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삼성전자가 분기별 실적을 집계한 2000년 이후 분기 적자를 기록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국내 본사를 기준으로 18조 4500억원의 매출에 94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발표했다.

반도체, 액정표시장치(LCD), 디지털미디어 등 휴대전화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의 실적이 악화됐다.

특히 반도체와 LCD가격의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두 사업

부면에서 각각 5600억 원과 35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영업손실을 냈다. 디지털 TV가 포함된 디지털 미디어 부문도 1700억원의 적자를 봤다.

휴대전화 사업은 비교적 선전(善戰)했다. 지난해 4분기 세계 휴대전화 시장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정도 줄었으나 삼성전자는 14%의 고성장을 이어가며 16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간 실적은 사상 최대 성적을 거뒀다. 해외실적을 포함한 연결기준으로 지난해 전체 118조 3800억원의 매출을 올려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연결기준으로 5조 7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상열 기자 syjeon@ktnews.com

반도체-LCD가격 폭락 직격탄

“삼성마저…” 경제 먹구름 현실화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국내 본사를 기준으로 18조 4500억원의 매출에 94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경제계는 이를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반도체, 액정표시장치(LCD), 디지털미디어 등 휴대전화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의 실적이 악화됐다.

‘어닝 쇼크’에 경제계 충격

1조원에 가까운 영업적자를 낸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놓고 경제계는 “삼성전자 너마저…”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삼성전자의 영업손실은 증권가가 당초 예상한 3000억~4000억원을 2배 이상 웃도는 규모였다.

삼성전자의 실적 악화는 내부적인 것이라기 보다 바깥 요인이 크다. 제품 경쟁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급속히 위축돼 수익성이 나빠졌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보기술(IT)제품의 수요가 줄면서 부품인 반도체와 LCD의 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두 사업부면에서 각각 5600억원과 35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영업손실을 냈다.

반면 휴대전화 사업은 지난해 4분기 사상 최대인 5280만대의 판매량을 올리며 전년 동기보다 14%성장했다. 이 기간 중 글로벌 시장 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5%줄었다.

시장조사기관인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는 올해 휴대전화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최근 내놓았다.

“그래도 선전한 것”

삼성전자 측은 최근 경기 침체 상황을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분위기가 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에 마케팅 비용으로 전 분기보다 9000억원 이상 더 집행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삼성전자 우종삼 상무는 “경쟁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실적을 올린 것”이라며 “거의 모든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주주설명회(IR)를 열었던 주요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올해 매출과 이익, 투자 등 구체적 경영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다.

대신 휴대전화, TV, 생활가전 등 일부 사업에서만 6개월 단위의 사업계획만 마련할 계획이다.

KT 4분기 266억 당기 손실

5년만에 적자 반전… SKT 분기매출액 KT 앞질러

KT가 작년 4분기(10~12월) 266억 원의 당기손실을 내 5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KT는 2003년 3분기(7~9월)에 4965억 원의 적자를 냈었다.

KT가 본사 기준으로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또한 1조 1137억 원, 44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3%, 54.2% 급감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연간 순이익 규모는 1997년(797억 원) 이후 최저치이다. 4분기 매출 규모는 2조 8700억 원대를 기록했다.

또 KT는 지난해 연간 매출 목표였던 11조 9000억 원, 영업이익

1조 2000억 원 달성에 실패했으며, 4분기 남중수 전 사장의 갑작스러운 퇴임에 따른 경영공백으로 연간 투자도 목표 대비 4000억 원 줄어든 2조 1872억 원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도 마케팅 비용의 증가와 3세대(3G) 통신망 투자 확대의 영향으로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1% 감소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2005년 이후 4년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도 1조 27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2% 줄어들었다.

한편 이동통신 1위 업체인 SK텔레콤은 지난해 4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실적에서 통신업계 1위인 KT를 앞질렀다.

SK텔레콤의 4분기 매출액은 3조 68억 원으로 사상 처음 3조 원을 돌파했다. KT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4.0% 감소한 2조 8753억 원에 그쳤다.

연간 실적으로는 11조 7849억 원의 매출을 올린 KT가 SK텔레콤(11조 6747억 원)을 앞질렀다. 하지만 연간 영업이익은 SK텔레콤(2조 599억 원)이 KT(1조 1137억 원)보다 1.8배 많았다.